

지리산허브밸리 관광지 유료화

27일 그랜드오픈 시작... 6월 대규모 허브축제 열 예정

남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지리산허브밸리가 유료 관광지로 개장된다. 남원시로부터 지리산허브밸리 민간 위탁을 받은 (주)엔이에스티는 오는 27일 그랜드오픈을 시작으로 허브가 지천으로 피어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허브축제를 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005년 전국 유일의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된 지리산허브밸리는 현장체험학습과 단체 체험을 위한 허브체험농원과 10여 년간 쌓아 온 남원허브산업의 허브과학기술이 집결된 허브테마파크인 허브사이언스센터, 지리산의 맑은 공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생식물환경공원이 조성 되어 있다.

허브체험농원은 육묘장, 허브정원 뿐만 아니라 경관정원을 갖추고 있어 유치원에서부터 일반 단체에 이르기 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허브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2017년에는 교육기관의 현장체험학습과 전국 각지에서 6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고 있다.

허브복합토피아관으로 알려져 있는 허브사이언스센터에는 허브식물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시설과, 체험관, 열린연구실이 들어서 있다.

열린연구실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허브사이언스센터의 핵심시설이다. 개인별 추출장치를 갖추고 허브에서 에센셜오일 등의 원료를 직접 추출하여 원하는 허브제품을 만드는 one-stop 허브체험을 제공한다.

(주)엔이에스티 관계자는 "허브체험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허브



남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지리산허브밸리가 유료 관광지로 개장된다.

의 재배·수확·추출·DIY 제품제조까지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열린 연구실뿐이다."며 "내가 좋아할 수 있는 허브를 선택하고 나를 아름답게 꾸며줄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생식물환경공원에서는 동화마을, 놀이마을, 사랑마을을 만날 수 있다. 동화마을에는 라벤더동산이 조성되고 있고, 오작교, 흑부리 영감, 금도끼은토끼, 도깨비나라 등의 조형물을 통해 이야기 속으로의 여행을 할 수 있다. 놀이마을은 로즈마리 향기를 맡으며 소풍을 즐기는 장소이다. 사랑마을은 핑크빛 철쭉동산 아래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주)엔이에스티는 지리산허브밸리를 남원허브산업의 과학기술을 담은 허

브사이언스파크로 변모시킬 꿈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리산의 자생허브와 남원의 허브 9가지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을 모아 나인허브 브랜드를 구성할 계획이며, 150억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허브복합테라피센터를 조성 중이다. 허브복합테라피센터에는 사우나, 킨벤션홀, 휘트니스센터, 유럽형매장, 식당, 호텔 등의 체험형 문화공간과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숙박, 휴식, 식사, 각종 행사 및 나인허브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남원허브산업의 과학기술력이 융합되어 허브사이언스파크로 거듭나는 지리산허브밸리는 개장과 함께 10여 년간 추진해 온 허브산업 육성이 결실을 맺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운암리 작은도서관 개관

순창 구립면, 지역 문화창작소 역할 기대

순창 구립면 아이들이 순창을 까지 가지 않아도,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은 지난 13일 구립면 운암리 작은도서관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구립면 작은도서관은 순창군의 면 지역에서는 동계면 작은 도서관 이후 두번째로 문을 연 도서관이다.

특히 면지역 작은도서관은 아이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어 구립면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실제 이번에 문을 연 구립면 작은 도서관에는 서가와 열람공간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모임공간, PC 활용 공간 등 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성인들의 여가 문화 활용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운암리 복지관 2층에 165㎡규모

로 들어 있으며 서가 21개에 도서 9천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했으며 국비 7천만원을 포함 총 1억 6천만원이 투자됐다. 특히 운영은 구립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김종섭 군의회의장, 최영일 도의원, 전북도 구형보 문화예술과장, 구립면기관단체장 및 구립면민 150여명이 참석해 작은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황숙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구립면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주민들의 여가 활용을 물론 문화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 아리

임실경찰서, 선거사범 합동 단속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지난 13일 임실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앞에서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 수사과 직원,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 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금품함응제공·선거폭력·흑색선전, 사이버 선거사범 등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각종신고 접수처리 및 사이버공간 모니터링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실=진홍경 기자

순창경찰, 불법선거사범 단속 강화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13일 순창경찰서 수사과내에 선거상황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품·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순창경찰은 선거상황실과 함께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함께 운영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운봉읍 철쭉나무 심기

운봉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공동위원장 이영태, 이정기)위원장과 운봉읍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장, 파출소장, 새마을지도자회, 운봉애향회장 등 운봉읍 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리 일대 화단에 철쭉나무 심기에 나섰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번 철쭉 나무심기 행사는 '제24회 지리산 배래봉 철쭉제' 행사에 즈음하여 1,000여주 철쭉나무식재, 잡목제거, 쓰레기수거 등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을 꽃밭으로 바꾸어 아름답게 꾸미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 민·관이 서로협력 추진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이영태 읍장장은 "철쭉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찾아오는 외부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조성에 앞장서며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살리고 보존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정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철쭉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운봉읍 단체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살기 좋은 운봉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협약

남원시는 지난 13일,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 및 남원 사랑 희망동행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남원시 이환주시장과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노재규회장,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의 협업을 통하여 2인 1조 현장방문 체계를 마련하여 인적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노재규 회장은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좋은이웃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사회복지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을 약속했다.

남원시 이환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민관협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남원 사랑 희망동행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남원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접수

순창군, 업체당 2000만원 한도내 지원... 4월 30일까지

순창군은 지난 3월 1회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소상공인 시설환경 개선 및 경영안정에 나섰다.

군은 이날 13일부터 시설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의 시설 증·개축, 화장실, 주방 개보수

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에 총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자가 최근 2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이면 된다.

특히, 창업의 경우 최근 1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사업을 3개월이상 영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황숙주 군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영업시설을 개선하여 경영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대출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용자금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날 27일까지 접수 중에 있다. 지원자격은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3~7등급이며 사업자별 3천만원한도내 용자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년리 4%한도내,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